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A Reevaluation of the Life of Ryo-oh Sunji

저자 鄭東樂
(Authors) Jung, Dong-Rak

출처 [신라사학보](#) , (14), 2008.12, 121-162 (42 pages)
(Source) [SILLASAHAKPO](#) , (14), 2008.12, 121-162 (42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400>

APA Style 鄭東樂 (2008).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신라사학보, (14), 121-162.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210.178.101.***
2020/03/30 16:0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鄭 東 樂*

- | | |
|---------------|-----------------------|
| I. 머리말 | IV. 오관산 선문의 개창과 지원 세력 |
| II. 관련 자료의 검토 | V. 맺음말 |
| III. 출가와 입당유학 | |

【국문초록】

了悟 順之는 涇江鎮의 平山朴氏 출신이었다. 그는 20세에 五冠山(龍巖寺)으로 출가하여, 俗離山(法住寺)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公岳山(桐華寺)에 머물렀다. 당시 동화사에는 眞表-永深을 계승한 心地가 주석하고 있었다. 순지는 858년 신라왕실에서 파견한 入朝使와 동행하여 入唐 유학하였다. 당에 도착한 후 곧바로 仰山 慧寂의 제자가 되어 滂仰宗을 계승하였다.

874년 귀국하자, 王建先代 세력이 용암사로 초청하였다. 순지는 왕건시대와 사회적 기반이 비슷하였고 산문 개창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였다. 876년에는 용암사를 크게 증축하고 사원명도 瑞雲寺로 바꾸었다. 한편, 순지는 신라왕실과도 결연하고 있었다. 경문왕은 순지가 귀국하자 편지를 보내 귀의하였다. 현강왕도 순지를 극진히 대우하였으며, 순지도 화답하여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 <梵日の 선사상> 《大丘史學》 68, 2002 ;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 <신라·고려시대 符仁寺의 변천과 현실대응> 《民族文化論叢》 39, 2008 외 다수

왕과 대면한 듯하다. 893년에는 진성여왕의 초빙으로 경주에 들어와 왕실에서 설법하였다. 순지는 농민항쟁세력과 호족세력의 반신라적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신라왕실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순지는 소위 지방호족세력은 물론 신라왕실과도 결연되어 있었다. 이는 선종을 단순히 지방호족과 연결시킬 수만은 없음을 보여준다.

순지 당시 서운사는 규모나 문인 등에서 9山門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번성하였다. 서운사를 중심으로 祖師와 門人의 계보가 형성되고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 하지만 弓裔정권기에는 탄압으로 인해 쇠락해 졌다가, 王建이 즉위하면서 위상이 다소 회복되기도 했다. 오관산 선문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명맥은 유지되었다.

주제어 : 羅末麗初, 禪宗, 順之, 瑞雲寺, 王建先代, 新羅王室

I. 머리말

了悟 順之(832~896)에 대해서는 1970년대 중반 선구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¹⁾ 나말려초의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당대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순지의 선사상을 상론과 삼편성불론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론은 선종사상의 개인주의적인 면을 강조하여 지방호족의 독자세력 형성에 도움을 준 사상이며, 삼편성불론은 상론의 사상을 흡수하고 나아가 지방의 대호족이 주위의 군소지방세력을 흡수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 그의 선종사상 내에는 仰山 慧寂(807~883)의 滂仰禪뿐만 아니라, 화엄경과 법화경 사상도 융합되어 있었으며, 교선일치를 주장하였다”고 한다.²⁾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연구가

1) 金杜珍, <了悟禪師 順之의 禪思想> 《歷史學報》 65, 1975 및 <了悟禪師 順之의 相論> 《韓國史論》 2, 1975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진전되지 못했다.

반면, 불교학계에서는 정성본, 최창술, 이병욱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성본은 순지는 위양종의 圓相의 선풍을 계승하여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보면서, 그의 선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현람(최창술)은 순지의 성불관을 분석하였으며, 이병욱은 천태 교판사상과 순지 선사상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았다.³⁾ 그 외에도 순지의 선사상이나 왕건선대와와의 관계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⁴⁾ 하지만,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⁵⁾

지금까지 순지는 나말 지방사회에 기반을 둔 선승으로 고려왕조를 개창한 태조 왕건의 선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그가 신라왕실과도 결연되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⁶⁾ 그는 수증론으로 선(頓悟)은 물론 교학의 수행(漸悟)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성불론으로 선 수행·사회적 실천·대중교화를 강조하였다. 또 화엄이나 법화사상 등 교학을 선사상

2) 김두진, 앞의 책, 2006, 12~13쪽.

3) 鄭性本,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현람(최창술), <순지의 성불관-삼편성불편을 중심으로> 《韓國佛教文化史想史》上, 가산이치관스님화갑기념논총, 1992;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혜안, 2002.

4)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1975;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출판부, 1989; 추만호, 《나말러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崔玄覺, <大朗慧無染의 無說土論> 《普照思想》 9, 1995;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5) 역사학계의 순지 연구는 1970년대 중반 김두진 이후 30여 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김두진의 연구가 워낙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지만, 서운사가 9산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순지와 왕실과의 관계는 《조당집》과 그의 비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약간 언급되었다(許興植, 《高麗佛教史 研究》, 一潮閣, 1986, 166~167쪽 및 韓基汶, <「祖堂集」과 新羅·高麗 高僧의 行蹟> 《한국중세사연구》 6, 1999, 204~205쪽).

내에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선과 교를 종합하였다.

이 글에서는 순지의 생애와 활동을 출가와 수학, 입당유학, 단월 세력과 오관산 선문의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삶의 과정마다 나타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의식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나말려초라는 격동기를 살았던 선승의 고민과 문제의식, 현실참여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관련 자료의 검토

순지 관련 기본 자료는 <瑞雲寺 了悟和尚 眞原塔碑>(이하 <순지비>)⁷⁾와 《祖堂集》 권20의 <五冠山 瑞雲寺和尚傳>(이하 <순지전>)이다. 그 외에 《景德傳燈錄》 권12의 <新羅 五觀山 順支大師傳>과 靜覺 국사 志謙(1145~1229)⁸⁾이 찬한 《宗門圓相集》⁹⁾을 통해 보완할 수

7) <순지비>는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과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등에 실려 있다. 근래에 李智冠과 한국역사연구회에 의해 교감 역주되었는데, <순지비>와 《조당집》을 대조하여 보완해 놓아 도움이 된다(李智冠, <開豐 瑞雲寺 了悟和尚 眞原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編1, 伽山文庫, 1994 및 한국역사연구회편, <瑞雲寺了悟和尚眞原塔碑>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上(原文校勘編)·下(譯註編), 혜안, 1996). 최근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국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원문과 해석(이지관 역주본)을 제공하고 있다.

8) 《東國李相國集》 권35, <故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 지점은 “순지의 사상을 계승하여 재정리한 선승으로, 소속 종파가 뚜렷하지 않으나 그가 주지한 사원에는 천태종의 국청사가 있으므로 의문”이라고 한다(許興植, 앞의 책, 1986, 167쪽).

9) 《韓國佛教全書》 6, 71~89쪽. 지점의 《宗門圓相集》은 수선사의 3세인 夢如가 1219년 발문을 쓰고 간행하였는데, 순지의 相論을 전제하고

있다.

현전하는 <순지비>는 937년(태조 20) 8월 崔彦擣¹⁰⁾가 後記를 찬한 ‘중수비’이다. 이 비는 크게 ‘비명’과 ‘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비명’은 題額과 撰者, 書者 및 立碑 시기 등이 결락되어 있다. 다만, 순지가 65세의 일기로 입적하자 大德 俊空이 행장을 바쳤으며, 이를 토대로 비명을 지었다고 한다. 반면, ‘후기’는 ‘國主大王 重修 故了悟和尚碑銘 後記’로 시작하여, 찬자와 입비 시기, 三綱典 등이 전한다.

순지는 진성여왕대에 입적하였으므로 ‘비명’은 입적 직후인 진성여왕이나 효공왕대에 찬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명’의 내용 중 “前王之 도는 황제를 뛰어넘고 … 今上의 덕은 舜과 禹임금과 같다”¹¹⁾라는 구절로 보아 효공왕대(897~911)일 것으로 여겨진다. 나말려초 선사의 비는 崔致遠·崔彦擣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이 지었다. 효공왕대의 문인으로는 朴仁範이 떠오른다. 효공왕은 先覺 道誡(827~898)과 澄曉 折中(826~900)이 입적하자 그 비문을 박인범에게 찬하게 했다. 도선의 비문은 찬술했으나 건립하지 못하였고, 절충의 비문은 최언위가 대신 찬하였다.¹²⁾ 순지의 비문은 897~900년 사이에 박인범이 찬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순지비>는 효공왕대 초 박인범이 찬하여, 경기도 장단의 서운사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효공

있다(鄭性本, 앞의 책, 1995, 210쪽 ; 韓基汶, 앞의 글, 1999, 191~192쪽).

10) 후기의 찬자는 ‘如罷縣 制置使 元輔 檢校尙書 左僕射兼御史大(夫)’로 관직은 알 수 있으나, 성명이 결락되어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편, 앞의 책 下, 1996, 44쪽 주 27)에서는 찬자를 최언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 선승의 비문을 거의 최언위가 찬하고 있어 이에 따른다.

11) 한국역사연구회 편, 앞의 책 下, 1996, 43쪽 주 23)에서 今上을 ‘신라 진성여왕 내지 고려 태조’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비문에서 ‘今上’은 앞의 ‘前王’과 대귀를 이루므로 고려 태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왕은 순지를 경주로 초빙한 진성여왕, 금상은 효공왕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252~253쪽.

왕이 了悟선사라는 시호와 眞原이라는 탐명을 내렸던 듯하다.¹³⁾

그 후 고려 태조가 <순지비>를 다시 중수하게 된다.

(가) 이 비는 辰韓(신라)에서 만들어져 일찍이 國諱가 쓰여 있었는데, 이번에 조서를 받들어 추존한 것을 보충하고 합당하게 두루(결략) 모두가 법식에 의거했으며, 아울러 서책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 (<순지비> 후기).

혜공왕대에 세워진 <순지비>에는 서운사의 단월이었던 王建의 조모인 龍女(元昌王后)와 龍建(威武大王, 王隆)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937년에 國諱를 추증된 시호로 수정하고 그 연유를 후기에 기록했던 것이다.¹⁴⁾

<순지비> ‘비명’은 왕건선대는 물론 경문왕 등 신라왕실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았다. 신라왕실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후기’는 원창왕후·위무대왕·왕건 3대의 업적을 찬양하고, 순지와 왕건선대와의 관계를 특기하였다. <순지비>는 신라 효공왕대에 서운사에 건립되었고, 937년 왕건선대의 국휘를 수정하여 중수한 것으로 정리된다.¹⁵⁾

한편, 952년에 편찬한 《조당집》의 <순지전>은 중수된 <순지비>를 참조하여 편찬하였다.¹⁶⁾ <순지비>와 <순지전>을 비교해 보면, 순지가 仰山 慧寂의 법을 잇고 귀국하여 龍巖寺¹⁷⁾(瑞雲寺로 중수)

13) 김두진은 “순지의 요오라는 시호를 내린 왕이 누구인지, 신라 중앙왕실에서 내린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시호이기 때문에 후대의 고려왕실에서 내려진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김두진, 앞의 책, 2006, 57~58쪽).

14) 추만호는 순지의 유해가 옛터(서운사)로 돌아온 시기를 후삼국 통일 뒤로 보는 점에서 필자와 차이가 있지만, 건립 과정에 대해서는 참고된다(추만호, 앞의 책, 1992, 115~116쪽).

15) 중수한 <순지비>의 刻者는 ‘引駕賜紫大德 帝釋院 釋□□’이다.

16) 韓基汶, 앞의 글, 1999, 190~191쪽 ; 김두진, 앞의 책, 2006, 21~26쪽.

에 머물기까지는 내용이 일치한다. 그 이후 신라왕실과의 관계, 비의 중수 내용 등은 <순지비>에만 언급되었다.¹⁸⁾ 반면, <순지전>에는 ‘相論’ 등 선사상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순지비>에는 신라왕실과의 관계, <순지전>에는 선사상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순지비>에는 순지가 ‘향년 65’로 전하지만, 결락으로 인해 정확한 생몰년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순지가 왕건선대와 결합하였지만 왕건과 인연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용건이 궁예에게 항복한 896년(진성왕 10) 이전에 활동하였다”¹⁹⁾고 한다. 그런데 <순지비>에는 몰년을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보인다.

- (나)-① 景福 2년(893, 진성여왕 7) 3월에 왕의 하교에 응하여 서울(경주)에 이르러 설법을 하니 (결락) 君王이 우리러 공경하고 士庶가 기뻐하였다. 입적하니 향년 65, 법랍 4□이다(<순지비> 비명).
 ② 鷄林에 의탁하여 3년(三歲) 동안 머물렀는데 … (결락) 갑자기 병환으로 인해 입적하였다(<순지비> 후기).

(나)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893년(진성여왕 7) 경주로 와서 3년여를 머무르다가 896년(진성여왕 10) 입적한 것으로 보인다. 순지의 향년이 65세이므로 그의 생몰년은 832(흥덕왕 7)~896년(진성여왕 10)으로 정리될 수 있다.²⁰⁾

17) ‘용암사’는 ‘龍巖寺’나 ‘龍巖寺’로 판독되는데, ‘龍巖寺’로 통일하였다.

18) 韓基汶, 앞의 글, 1999, 204~205쪽.

19) 김두진, 앞의 책, 2006, 56쪽.

20) 순지의 생몰년을 831~895년으로 보기도 한다(추만호, 앞의 책, 1992, 155쪽 <표 5> 참조).

<표 1> 순지의 생애와 활동²¹⁾

시기	연도	활동 내용
출가 수학	832년(홍덕왕 7)	출생
	838년(7세), 841년(10세)	大乘의 도량이 나타나고, 학문을 익힘.
	851년(문성왕 13, 20세)	五冠山(龍巖寺?)에서 출가.
	854~855년 855~858년	俗離山(法住寺?)에서 수계. 公岳山(桐華寺?)에 머무.
입당 유학	858년(현안왕 2, 27세)	入朝使와 동행하여 입당. 仰山 慧寂의 법을 잇고 圓相의 선문답으로 學人 지도
신문개창과 교화 활동	874년(경문왕 14, 43세)	신라로 귀국. 乾符 초 元昌王后 와 威武大王 이 五冠山 龍巖寺에 머물게 함. 경문왕이 지주 편지를 보냄.
	876년(현강왕 2, 45세)	乾符 中 용암사 옆으로 터를 옮겨 크게 증축함 사명을 瑞雲寺로 함?).
	876년(현강왕 2) 877년(현강왕 3)	현강왕의 귀의가 돈독함. 대면 가능성 있음.
	886년(현강왕 11, 55세)	왕의 돌아가자 門人을 통해 金銀을 보내고 조문함.
	893년 3월(진성여왕 7, 62세)	진성여왕의 下敎로 경주에 들어와 설법함. 鷄林인근에 3년 동안 머무.
입적 및 입비	896년(진성여왕 10, 65세)	입적. 향년 65, 범랍 4□ 龍建이 松岳郡 沙餐 으로弓 齋에 귀부.
	효공왕대(897~911) 초	朴仁範(?)이 順之碑銘을 찬술하고, 탑과 비를 오관산 서운사에 건립. 시호는 了悟, 탑명은 眞原.
	937년(태조 20)	崔彦擣가 後記를 쓰고, 8월 17일 重修碑 건립.

Ⅲ. 출가와 입당유학

1. 출가와 수학

순지의 신분 등 사회적 배경은 <순지비>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21) 이 표는 기왕의 성과를 참조하고 새롭게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김두진, 앞의 책, 2006, 56~65쪽; 鄭性本, 앞의 책, 1995, 206~208쪽; 한국역사연구회편, 앞의 책 上, 1996, 40쪽).

(다) 和尚의 이름은 順之이고 속성은 朴氏로 溟江人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家業이 雄豪하였으며, 대대로 邊將이 되어 충실하고 근면하다는 명예가 향리에 널리 퍼져있었다. 어머니는 昭氏이다. … 임신한 후 자주 문수보살의 꿈을 꾸었고, 해산할 때에도 이상한 상서가 많았다(<순지비> 비명).

순지는 속성이 朴씨, 溟江人이며 어머니는 昭씨였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溟江진의 장수 출신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순지의 신분은 최고 6두품 출신으로 지방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지방호족,²²⁾ 평산지방의 무장가문 출신,²³⁾ 平山지방의 호족인 平山朴씨 朴守卿 가문과 연결되며,²⁴⁾ 平山朴씨는 郡진세력이 호족세력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²⁵⁾라고 한다. 요컨대, 순지는 선대가 溟江진에 정착하면서 지방세력화 한 平山朴씨 출신이었다.

순지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문수보살의 꿈을 꾸거나, 출생 당시 여러 상서가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불교적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10살이 되자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하므로, 그의 집안은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라) 弱冠(문성왕 13, 851) … 마침내 양친에 고하여 장차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자 하니, 그 뜻을 꺾을 수 없어서 허락하였다. 곧 五冠山에 들어가 출가하고, 이어 俗離山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 이어 公岳山(公山)에 갔다(<순지비> 비명).

22) 김두진, 앞의 책, 2006, 57쪽;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140쪽.

23)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11, 1975, 124쪽.

24)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123쪽 및 157~159쪽; 曹凡煥, 앞의 책, 2008, 224쪽.

25)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46쪽.

순지는 20세(851)에 출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적 경향에 비해 약간 늦은 편이다. 이를 國役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²⁶⁾ 출가 과정에서 양친이 반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의지가 작용한 듯하다. 순지는 “10살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글을 짓고 뜻을 읊었다”라고 하여 출가 전까지는 신라의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했던 듯하다. 하지만 관직 진출이 어렵게 되자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적 가정 분위기와 승려로의 진출을 제한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순지비>에는 수계시기를 알려주는 법랍이 ‘4□’로 결락되어 있다. 법랍을 ‘42’로 보기도 하지만,²⁷⁾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없다. 순지가 65세에 입적했으므로, 수계는 출가한 851년에서 856년(문성왕 18) 사이가 된다. 나말려초 승려의 수계는 출가 후 3~12년 사이였고²⁸⁾ 수계 후 공약에 머물렀으므로, 854~855년 사이에 구족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는 계율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산으로 유력하였다. 대략 855~858년 사이의 3~4년 정도를 공산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순지가 출가·수계·순력한 사원은 오관산·속리산·공약산(공산) 등 산명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순지와 왕건선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출가한 곳은 오관산의 龍巖寺, 구족계를 받은 곳은 속리산 長岬寺로 보거나,²⁹⁾ 오관산을 靈通寺로³⁰⁾ 속리산을 法住寺³¹⁾로 추정기

26) 나말려초 선승들은 20세 이전, 특히 15세에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崔源植, 《新羅菩薩戒思想研究》, 民族社, 1999, 275~278쪽;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324~325쪽). 이는 《四分律》의 출가 규정 및 國役과 밀접한 것으로 파악된다(許興植, 앞의 책, 1986, 319쪽; 崔源植, 앞의 책, 1999, 293쪽; 김용선, 앞의 책, 2004, 324쪽).

27) 한국역사연구회 편, 앞의 책 上, 1996, 40쪽.

28) 崔源植, 앞의 책, 1999, 281쪽.

29) 김두진, 앞의 책, 2006, 64~65쪽.

30)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앞의 책 下, 202쪽. 하지만, 오관산사는 靈通寺

도 한다. 입당 전 머물렀던 공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연구가 없다.

먼저, 오관산은 “장단도호부의 서쪽 30리”³²⁾에 위치하지만, 순지와 관련된 용암사(서운사)는 여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澄曉 折中(826~900)은 순지보다 20여 년 전인 832년(흥덕왕 7) 오관산사의 珍傳법사에게 출가했다.³³⁾ 순지와 절충은 모두 박씨로 패강(순지: 평산, 절충: 鳳山)지역의 무장가문 출신이었고, 또 왕건선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출가한 사원은 동일한 곳으로 용암사였을 가능성이 있다.³⁴⁾

944년(혜종 1) 세워지는 절충비의 음기에는 王堯·王昭·淸端 등 정종과 광종이 되는 태조의 아들과 딸이 기재되어 있다.³⁵⁾ 만약 절충이 출가할 당시 오관산 용암사가 왕건선대와 연결되었다면, <절충비>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순지비>에도 출가 당시의 사원과 왕건선대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로 보아 왕건선대가 용암사를 경영한 것은 순지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절충과 순지가 출가한 오관산사는 용암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용암사가 왕건선대와 연결되는 것은 순지가 출가하는 851년에서 귀국하는 874년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순지가 구족계를 받은 속리산의 사원은 어디였을까. 구족계는 승려

가 될 수 없다. 영통사는 919년(태조 2)에 건립되었기 때문이다(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35쪽).

31) 李智冠, 앞의 책, 1994, 61쪽.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長湍都護府 山川조.

33) 李智冠, <寧月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文> 앞의 책(고려편1), 1994 및 한국역사연구회 편,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 앞의 책 上·下, 1996.

34) 박정주는 이들이 서로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朴貞柱, <新羅末·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震檀學報》 77, 1994, 23쪽).

35) 朴貞柱, 앞의 글, 1994, 24~26쪽.

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의식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戒壇(官壇)이 설치된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하였다. 신라하대의 관단은 9州에 걸쳐 망라되어 있었다.³⁶⁾ 속리산에 위치한 관단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순지의 행적을 통해 추측해 보기로 한다.

(마)-① (수계 후) 公岳山(公山)에 갔다가 문득 신인을 만났는데, 절에 머물러 줄 것을 청하였다. 절 모습이 마치 兜率天과 같았는데, 인연에 따라 설법하니 잠깐 사이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 乾符년간 중에 寺宇를 넓히려고 하였으나 부지가 좁고 치우쳐 있어 옛 터로부터 1리 정도 떨어진 곳에 별도로 吉祥스러운 곳을 점쳐(別卜吉祥之地) 구릉을 다스리고 (결락) (<순지비> 비명).

② 釋心地는 신라 41대 헌덕왕(809~826) 金씨의 아들이다. 15세에 출가하여 佛道를 부지런히 닦았다. 中岳에 머물렀는데 마침 俗離山の 永深이 眞表律師의 佛骨簡子를 전해 받아서 果訶法會를 연다는 말을 듣고 결심하고 찾아 갔다. … 영심이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 뜻을 받들라” 하고 간자를 주었다. 심지가 머리에 이고 중악에 돌아가니 중악의 神이 두 仙子를 데리고 산 위에서 맞아 심지를 인도하여 바위 위에 앉히고 삼가 正戒를 받았다. 심지가 이르기를 “지금 장차 적당한 곳을 택하여 신성한 간자를 봉안하려 하는데 우리가 지정할 수 없으니 그대들 셋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 간자를 던져 자리를 점을 치자”(擲簡以卜之)고 하고, 신들과 함께 산마루에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니 … 신라 말 신라의 大德 釋沖이 고려 태조에게 진표율사의 袈裟 1벌과 戒簡子 189매를 바쳤다고 하는데, 지금 동화사에 전해오는 간자와 같은지는 알 수 없다(《三國遺事》 卷4, <心地繼祖>).

(마)-①은 속리산에 머물던 순지가 구족계를 받은 후 “公山에서 神人을 만나고 그의 청으로 머문 절의 모습이 兜率天과 같았다”는 사실과, 寺宇를 확장할 때 길상스러운 곳을 점쳐서 부지를 선정하는 모습

36) 許興植, 앞의 책, 1986, 321쪽 ; 韓基汶, 앞의 책, 1998, 360쪽 ; 崔源植, 앞의 글, 1999, 281~282쪽 ; 金용선, 앞의 책, 2004, 336~337쪽.

(別卜吉祥之地) 등을 전한다. 이는 (마)-②의 心地가 중악에서 속리산의 永深을 찾아 법회에 참여하고, 佛骨簡子를 얻어 中岳으로 올 때 中岳神을 만나 계를 주고 간자를 모실 堂을 지을 곳을 점쳤던 것과 흡사하다. 또 공산에서 순지가 머문 절의 모습이 마치 兜率天과 비슷했다고 하는데 도솔천은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로 보아 순지는 眞表-영심-심지로 이어지는 참회와 실천을 중시했던 진표계의 미륵신앙³⁷⁾에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그 때문에 오관산을 떠나 속리산, 공산으로 순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표계 미륵신앙은 金山寺를 비롯해 속리산·명주·금강산과 같은 신라의 변방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며,³⁸⁾ 占察法이라는 실천행을 바탕으로 미륵과 지장보살을 중시하였다.³⁹⁾

진표계 미륵신앙은 반신라적인 성격으로, 심지가 진표의 불골간자를 중악 동화사로 가져온 것을 신라 변방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보기도 하지만,⁴⁰⁾ 그에 대한 반론도 있다.⁴¹⁾ 이 시기 심지나 동화사가 반신라적인 동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⁴²⁾ 순지가 진표계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반신라적인 성격을 지녀서가 아니라, 실천을 중시하는 신앙 경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순지가 구족계를 받은 사원은 속리산의 法住寺, 수계 후

37) 金南允,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1984.

38)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275쪽.

39) 金南允, 앞의 글, 1984, 147쪽.

40) 李基白, 앞의 글, 1986, 275쪽.

41)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1999, 409~412쪽.

42) 조범환은 “경문왕이 민애왕의 추숭사업을 위한 석탑을 건립한 것은 그곳에 주석하고 있는 심지를 통하여 미륵신앙의 수용을 꾀한 것이며, 심지는 진표의 신앙을 회유하고 그 영향력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 승려”로 파악한다(曹凡煥,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16, 1999, 31~33쪽).

머문 사원은 공산의 桐華寺일 가능성이 높다. 순지가 동화사에 머문 시기는 855~858년 사이인데, 이 시기 동화사에는 심지가 주석하고 있었다.⁴³⁾ 863년(경문왕 3) 조성된 동화사의 비로암삼층석탑의 조성을 주도한 專知大德 心智는 심지와 동일인이었다.⁴⁴⁾ 이 시기 동화사는 신라왕실의 원당으로, 헌덕왕자 출신인 심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⁴⁵⁾ 따라서 동화사에 머물던 순지는 심지를 통해 신라왕실과 연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 순지는 패강진의 평산박씨 출신으로 오관산 용암사에서 출가 하여, 속리산 법주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공산 동화사에 머물렀다. 그는 참회와 실천을 중시하는 진표계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동화사에서는 심지와 상면키도 하였으며, 이때 신라왕실과도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순지의 신분적 배경과 출가 후의 행적은 이후 왕건전대는 물론 신라왕실과도 연결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2. 입당유학과 滄仰宗의 계승

공산에 머물렀던 순지는 858년(헌안왕 2) 入朝使와 함께 입당하였다. 입당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바) 大中 12년(858)에 이르러 입당 유학하여 구법할 서원을 세우고 入朝使를 따라 바다를 건넜다. 한척의 배를 타고 만경창과를 건너는데도

43) 金福順, <8·9세기 신라 瑜伽系 佛教> 《韓國古代史研究》 9, 1993, 45쪽.

44) 韓國古代社會研究所, <閔哀王石塔 舍利盒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1992.

45) 정동락, <신라·고려시대 符仁寺의 변천과 현실대응> 《民族文化論叢》 39, 2008, 519~520쪽.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움직이지 않고 安禪에 들었다. 곧바로 仰山 慧寂 화상이 있는 곳을 찾아가 발아래 절을 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순지비> 비명).

(바)에서는 순지가 개인적인 구법을 위해 서원을 발하여 유학한 것으로 전한다. 이를 순수한 학문적·종교적 열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⁴⁶⁾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 후기 선승의 경우 전체의 2/3가 유학하였으나 고려전기가 되면 대폭 감소한다. 승과가 시행되면서 유학 열기가 식기 시작하여, 입당유학과 僧科 급제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었다.⁴⁷⁾ 신라하대 선승들의 입당이 급증한 것은 과거에 합격한 도당유학생들이 귀국 후 관직에 진출하는 가운데, 승려로서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승과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순지도 승려로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유학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신라왕실의 불교정책도 크게 작용하였다. 821년(헌덕왕 13) 귀국한 元寂 道義는 魔語라는 비방 속에 산림으로 은거한데 반해, 흥덕왕대가 되면 證覺 洪陟이 南嶽 實相寺에 머물자 왕이 국태민안의 법문을 청하였으며, 眞鑑 慧昭(774~850)가 귀국하자 상주 長栢寺에 주석케 하였다. 이처럼 순지가 태어나던 830년대 이후는 선승들이 신라로 귀국하기 시작하였고, 신라왕실에서는 선종사상을 수용하면서 국가의 정치이념⁴⁸⁾으로 채택해 나가던 시기였다.⁴⁹⁾ 특히 846년 당

46) 여성구는 “통일신라기 신라승은 왕실의 인정을 받아 사회적 입지 획득과 선진학문을 배우기 위한 학문적·종교적 열의로 입당하였다”고 한다(呂聖九, <統一期 在唐留學僧의 活動과 思想> 《北岳史論》 8, 2001, 4~5쪽).

47) 김용신, 앞의 책, 2004, 350~353쪽.

48)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高翊晉, 앞의 책, 1989;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49) 정동락,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17~

무종의 會昌廢佛로 다수의 선승들이 귀국하면서 선종사상이 크게 확산되었다.⁵⁰⁾ 이처럼 순지는 선종사상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목적과 학문적·종교적 열정이 어우러져 입당유학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순지가 입당하는 배 속에서 安禪에 들고, 곧바로 仰山 慧寂(807~883)의 문하를 찾아간 점은 입당 전에 선종을 접했으며 중국 선종계에 대한 정보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그는 공산에서 유학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지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당시 귀국하던 선승들로부터 선수행에 대해서도 다소간 배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순지와 함께 입당한 入朝使에 대해 “당시는 지방호족들이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통교를 행하였으므로 왕실에서 보낸 사신이 아닐 수 있다”⁵¹⁾고 한다. 순지가 중앙왕실과 무관하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사실 858년(헌안왕 2)의 입조사는 《삼국사기》에는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입조사나 賀正使 등의 파견이 누락된 경우는 자주 보인다. 圓朗 大通(816~883)은 856년(문성왕 18) 하정사와 동행하였지만,⁵²⁾ 《삼국사기》에는 누락되었다. 그런데 858년은 헌안왕의 즉위 후 입조사를 파견해야 할 시기였다.⁵³⁾ 순지와 동행한 입조사는 858년 입당하여 신왕의 즉위 사실을 통보하고 책봉을 받는 것이

23쪽.

50) 權惠永, <唐 武宗의 廢佛과 新羅 留學僧의 動向> 《精神文化研究》 54, 1994.

51) 김두진, 앞의 책, 2006, 57~58쪽.

5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月光寺 圓朗禪師塔碑> 앞의 책, 1992 및 李智冠, <忠州 月光寺 圓朗禪師 大寶禪光塔碑文> 앞의 책(신라판), 1993.

53) 862년(경문왕 2) 7월 당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전하였고 8월에는 입당사를 파견하였다. 또 876년(헌강왕 2) 7월에도 당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전하였다. 신왕 즉위 이듬해 7월경에 사신을 파견하는 경향성이 보인다.

임무였던 듯하다.

순지가 신라왕실에서 파견한 입조사와 동행했다면, 신라왕실이나 입당사의 배려가 필요하였다. 순지를 도와준 인물은 그의 가문과 관련된 세력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입당 전 머물렀던 동화사의 심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순지는 동화사에서 심지의 주선으로 신라왕실의 도움을 받아 입조사와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도착한 순지는 곧바로 仰山 慧寂(807~883)을 찾아갔다. 순지가 양산을 찾은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滂仰宗은 중국 5家 7宗 중 가장 먼저 종파로 형성된 점과,⁵⁴⁾ 순지와 같은 폐강지역 출신으로⁵⁵⁾ 856년에 입당한 대통이 慈忍선사의 권유로 양산 문하에서 수학한 것이 주목된다. 당시 신라사회에는 양산과 위양종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순지가 양산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양산 문하에서의 16년에 걸친 유학생황에 대해서는, 수학과정과 圓相을 통해 학인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전한다.

(사)① 곧장 양산 혜적화상에게 가서 발아래에 절을 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 선사께서 그의 걸을 떠나지 않고 깊고 깊은 종지를 물었다. 마치 顏回가 공자 곁에 있는 것 같고 迦葉이 부처님의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니, 그 때에 모였던 대중들이 매우 감탄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승에게 법인을 전하니 스승과 제자의 사자상승이 계속되어 끊이지 않았다. (결락) 미혹된 자의 정체됨은 만겁에 있고 깨달은 자의 깨달음은 순식간에 있다. 見性은 너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 나의 설을 거둬 (결락) (<순지비> 비명).

② 돌아가신 선화상은 도가 楞伽에서 으뜸이고 명성은 중국에서 높았다. 새로이 양산의 심인을 이어 멀리 가섭의 종지를 선양하였다(<순지비> 후기).

54) 鄭性本, 《禪의 歷史와 禪思想》, 三圓社, 1999, 401쪽.

55) 朴貞柱, 앞의 글, 1994, 8~11쪽.

양산 문하에 입문한 순지는 안회와 공자, 가섭과 부처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모범을 보여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았다. 어느 정도 수학과정을 거친 순지는 ‘頓悟見性’을 통해 인가를 받게 된다. 위양종의 선풍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인가 후에는 上堂 說法을 통해 학인들을 지도기도 하였다.

(아) 어떤 승려가 묻기를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라고 하니, 순지 대사가 拂子를 세웠다. 다시 “그것이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대사가 불자를 던져버렸다. 승려가 다시 “以자도 아니고 八자도 아닌 그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대사가 등근 圓相을 그려 보였다. 어떤 승려가 대사 앞에서 다섯 개의 원상을 그리니 대사가 지워버리고 따로 원상 하나만을 그려보였다.⁵⁶⁾

순지는 상당 설법 시 圓相을 보이는 선문답을 통해 학인들을 가르쳤다. (사)-②의 “도가 楞伽에서 으뜸이고 명성은 중국에서 높았다”고 하므로, 당은 물론 신라에도 명성을 떨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양종은 중국 선종 5가 중 처음 형성된 종파로 南岳-馬祖-百丈 문하의 滄山 靈祐(771~854)-양산 혜적 2대의 독창적인 선풍을 말한다. 위양종은 근원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圓相을 그려 圓示의으로 표현하여 수행자들을 인도하는 方圓默契의 가풍이 특징이라고 한다.⁵⁷⁾ 특히, 양산은 일체의 언어와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廻光返照를 통해 자기의 근원을 밝히라고 강조하였다.⁵⁸⁾ 순지는 양산의 원상을 통한 선문답을 신라사회에 맞게 독특한 사상으로 변용하여⁵⁹⁾ 한층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전개하였다고 평가된다.⁶⁰⁾

56) 《景德傳燈錄》 卷12, <新羅 五觀山 順支大師傳>.

57) 鄭性本, 앞의 책, 1995, 211쪽.

58) 鄭性本, 앞의 책, 1999, 401쪽.

59) 김두진, 앞의 책, 2006, 96쪽.

한편, 순지와 함께 중국의 위양종을 계승한 선승으로는 원랑 대통과 慈忍선사가 있다.⁶¹⁾ 대통은 856년(문성왕 18) 입당하여 양산 혜적에게 선을 배운 후 866년(경문왕 6) 귀국하였다. 그 후 경문왕의 귀의를 받으며 月岳山 月光寺에 주석하였다. 순지와 대통은 박씨로 涇江과 黃州 지역 출신으로 양산 문하에서 수학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자인 선사는 원랑 대통의 사형이자, 澄曉 折中(826~900)의 또 다른 스승이었다. 절충은 866~882년까지 16년간 道譚禪院에 있던 자인 선사 아래에서 수학하여 “妄言의 경지와 得意의 마당”에 이르렀다. 그는 대통을 설득하여 입당유학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자인선사는 입당선승으로 대통에게 양산 문하에 수학토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위양종을 전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IV. 오관산 선문의 개창과 지원 세력

1. 오관산 선문의 개창과 王建先代

순지는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乾符 초에 귀국한다. 경문왕이 귀의한 사실과 몰년(875) 등을 고려하면 874년에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 동기는 “크게 禪敎를 열어 자비의 法燈을 널리 비추었다”(<순지비>)거나, “表相現法으로 門徒들을 지도했다”(<순지전>)는 등으로 보아, 중국에서 체득한 위양선을 신라 사회에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0) 鄭性本, 앞의 책, 1995, 214쪽.

61) 朴貞柱, 앞의 글, 1994, 8~11쪽.

- (자)-① 파도를 헤치고 고국을 향해 문득 옛 동산에 이르렀다. 이에 크게 禪敎를 여니 寶月이 밝게 비추고 慈燈을 널리 밝혔다. 乾符 초(874)에 松岳郡의 女檀越인 元昌王后와 그 아들이 威武大王이 五冠山 龍巖寺를 시주하자 문득 가서 머물렀다. 그 절은 곧 ‘해동의 이름난 구(海內名區)였으며, (결락) 지금의 瑞雲寺로 고쳤다. 乾符 中(876)에 寺字를 넓히려고 하였으나 부지가 좁고 치우쳐 있어 옛 터로부터 1리 정도 떨어진 곳에 별도로 吉祥스러운 곳을 점쳐 구릉을 다스리고 (결락) (<순지비> 비명).
- ② 해 뜨는 동쪽에 (결락) 이르렀다. 돌아가신 聖考大王이 멀리 자애로운 분이 오시는 것을(慈軒) 기다려 곧 예우를 갖추어 길옆에 나아가 함께 이야기 하니, 그 정이 제자와 같았고, 각별히 존경하는 예가 스승을 모신 것보다 더하였다. (결락) 황공하게도 元昌王后가 五冠山 龍巖寺에 주지하여 길이 禪那別館으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이 때문에 보배로운 행차를 멈추어 곧 禪林에 머물렀다. … 讓興王의 산고개에 못 현인이 다 모이고 많은 선비가 왔었다(<순지비> 후기).

874년에 귀국한 순지는 元昌王后(龍女)와 威武大王(龍建)이 오관산의 용암사를 시납하자 그곳에 주지하면서 禪敎의 가르침을 베풀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단월세력인 왕건선대의 지원으로 오관산 선문을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①에서는 순지가 귀국하자 원창왕후와 위무대왕이 용암사를 시주했다고 전하며, (자)-②에서는 용건이 귀국하는 순지를 기다려 용암사로 초치하고 禪那別館으로 삼게 했다고 한다. 당시 개성·서해안 일대의 지방세력이었던 용건 모자는⁶²⁾ 순지의 귀국 정보를 알고 그를 초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선대는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력권 내에 사원을 경영하고 있었다.⁶³⁾ 당시는 선종이 풍미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던 중 순지가 귀국하자, 자신

62) 김두진, 앞의 책, 2006, 22~23·58~65쪽.

63) 김두진, 앞의 책, 2006, 64~65쪽.

들이 경영하던 용암사로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순지는 용암사에서 출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용건 모자는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고려왕실의 世系를 소개하면서 李齊賢(1287~1367)이 인용한 《聖源錄》에는 “昕康大王(卽懿祖: 作帝建)의 아내인 龍女는 平州人 豆恩帖角干的 딸”⁶⁴⁾이라고 한다. 용녀와 순지는 모두 평산출신으로,⁶⁵⁾ 동족일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평산박씨의 용녀가⁶⁶⁾ 동족인 순지를 초청함으로써, 왕건선대와 패강지역의 연대를 강화코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건 모자가 다른 선승들보다 순지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왕건선대가 순지를 초청한 것은 패강지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순지 역시 용암사는 자신이 출가한 곳이었으며, 출신기반이 비슷한 왕건선대에 대해 호감을 가졌을 법하다. 더구나 귀국 후 자신의 선사상을 펼칠 산문 개창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용건 모자는 순지를 초청하여 용암사를 ‘선나별관’으로 삼게 했다. 나말려초 선나별관의 사례는 朗慧 無染(800~888)과 澄曉 折中에게서도 보인다. 871년(경문왕 11) 경문왕이 무염을 경주로 초청하여 국사로 모셨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尙州 深妙寺가 경주로부터 가까워 선나별관으로 삼아 머물게 하였다.⁶⁷⁾ 또, 888년(진성여왕 2) 진성여왕은 興寧寺를 떠나 피난 중이던 절중에게 陰竹縣 元香寺를 선나별관으로 삼게 했다.⁶⁸⁾ 선나별관은 경주에서 가까운 곳에 있거나, 신라왕실에

64) 《高麗史》 권1, 高麗世系.

65) 李樹健, 앞의 책, 1984, 140쪽.

66) 鄭清柱, 앞의 책, 1996, 99~100쪽.

6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聖住寺 朗慧和尚塔碑> 앞의 책, 1992 및 李智冠, <藍浦 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文> 앞의 책(신라편), 1993.

서 경영하는 사원으로 선승들을 머물게 한 곳으로 보인다. 순지의 경우 ‘선나별관’은 신라왕실과 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왕건선대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순지가 머문 용암사는 ‘海內名區’로 여겼다. 오관산에 대한 명당관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③ 다음해(919) 3월에 마침내 門弟子인 閑俊과 化白 등을 불러 말하기를 “開州의 (五)冠山은 藏胎處이니, 이 산은 산세가 아름다우며, 지맥이 평안하다. 마땅히 스님의 무덤을 짓게 되면, 필히 종실을 높이는 보살핌을 얻을만한 곳이다”고 하였다.⁶⁹⁾

先覺 迥微(864~917)는 왕건을 지지하다가 917년 弓裔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 이듬해에 즉위한 왕건은 형미에 대한 추도의 뜻으로 오관산에 부도탑을 세우고 제자들을 머물게 했다. 오관산은 왕건의 藏胎處⁷⁰⁾ 산세와 지맥이 뛰어나며 사원을 건립하면 종실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즉, 오관산은 왕건 자신은 물론 그 선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으로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라는 것이다.⁷¹⁾ 또, 왕건은 921년(태조 4)에도 오관산에 大(泰)興寺를 창건하고 승 利言을 스승으로 맞아들였다.⁷²⁾ 이언은 須彌山門의 眞澈 利嚴(869~936)이므로,⁷³⁾ 태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오관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68) 李智冠, <寧海 興寧寺 澄曉大師 寶印塔碑文> 앞의 책(고려편1), 1994 및 한국역사연구회 편, <홍녕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앞의 책 下, 1996.

69) 李智冠,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塔碑文> 앞의 책(고려편1), 1994, 331쪽.

70) 秋萬鎬, <羅末麗初 禪師들의 胎夢과 民衆生活> 《韓國佛教文化史想史》上,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1992, 654쪽.

71) 崔柄憲, 앞의 글, 1975, 136쪽.

72) 《高麗史》 권1, 태조 4년 동10월 丁卯.

73) 曹凡煥, 앞의 책, 2008, 218쪽 주 31).

순지는 876년경(乾符 中, 현강왕 2)에 별도로 길상스러운 곳을 점쳐 원위치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우를 중창하였다. 중창지를 선택할 때 ‘別卜吉祥地’한 것은, 동화사의心地, 굴산사의梵日 등과 비슷하다. 순지가 당시 유행하던 진표계 미륵신앙과 풍수지리사상을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

용암사의 중창은 용건 모자의 지원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지의 출신인 패서호족(평산박씨)의 후원도 예상할 수 있다.⁷⁴⁾ 중창을 계기로 산문의 규모를 일신하고 사원명도 용암사에서 서운사로 고쳐 부른 듯하다. 이후 서운사에는 “뭇 현인이 모두 모이고 많은 선비가 왔다”는 것으로 보아 번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순지는 귀국 직후 왕건선대의 지원으로 오관산 선문을 개창할 수 있었다. 왕건선대의 선종사원 경영 욕구 및 패강세력과의 유대강화 의도와 패강출신으로 산문 개창이 필요했던 순지의 필요성이 서로 부합된 결과였다. 이는 소위 ‘호족세력과 선승의 결합’ 양상을 잘 보여준다.

2. 순지와 신라왕실의 결연

순지는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왕건선대의 도움으로 오관산 선문을 개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신라왕실과는 특별히 결합하지 않았으며,⁷⁵⁾ 지방의 대호족과 결합하여 중소호족을 통합하는

74) 용녀가 평산박씨 출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패서호족의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순지가 출가한 사원이 용암사이므로 왕건선대 이전의 단월이 평산박씨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범환도 “왕건선대와 함께 패서지역 호족도 당연히 순지계 불교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曹凡煥, 앞의 책, 2008, 224쪽).

75) “순지와 왕실과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입조사를 따라 중국에

이념을 제공했다⁷⁶⁾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순지는 신라왕실과도 결연하였기 때문이다. 순지와 신라왕실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 (차)-① 경문대왕이 자주 편지를 내려 공손히 우러르니 (결락) 현강대왕이 친히 법의 교화를 이어 길이 존엄을 받들었다. 마치 葉麻騰이 낙양에 들어오던 때와 康僧會가 오나라에 가던 날과 같았다. 그 만남에 대해 말하자면 실로 저들마저도 부끄러워할 정도였다. … 홀연히 中和년간(881~884)에 (현강왕)이 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문인을 통해 금과 옥을 보내어 法恩을 (결락) 도왔다. 景福 2년 3월(893, 진성여왕 7)에 下敎에 응하여 서울에 이르러 설법을 하니 (결락) 君王이 우러러 공경하고 士庶들이 기뻐하였으니 말하자면 (결락) 佛日이 다시 중천에 뜬 것이요 優曇華가 (결락) (<순지비> 비명).
- ② 溟水에서 병사가 일어나고 遼陽에서 군대가 움직여 영웅이 각축하고 여러 지방은 (결락) 화상은 雲泉을 보존하기 어려워 먼지나는 길을 따라 호랑이 굴을 여러 번 지나 鷄林에 이를 수 있었다. 鷄林에 의탁하여 3년 동안 머물렀는데 밥을 사망에서 빌어먹었다. (결락) 바닷가에 있을 때 참으로 좌석에 가득 찬 제자들이 사랑스러웠다(<순지비> 후기).

874년(경문왕 14) 순지가 귀국하자 경문왕은 자주 편지를 보내 귀의하였다. 경문왕은 무염을 國師로 임명하는 등(871) 선종 산문을 회유하기 위한 불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⁷⁷⁾ 그 연장선상에서 순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는 왕건선대와 패강지역의 회유라는 목적도 게재되어 있었던 듯하다. 경문왕의 귀의에 대해 순지가 어

간 것과 시호가 요오라는 기록뿐인데, 순지와 같이 중국에 들어간 입조사가 신라왕실에서 보낸 사신이 아닐 수 있으며, 시호 역시 신라 중앙왕실에서 내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후대의 고려왕실에서 내려진 것일 수 있다”고 한다(김두진, 앞의 책, 2006, 57~58쪽).

76) 김두진, 앞의 책, 2006, 103쪽.

77) 曹凡煥, 앞의 글, 1999, 36~43쪽.

떻게 대응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은 헌강왕 역시 순지에게 적극 귀의하였다. 순지와 헌강왕의 관계에 대해 ‘葉麻騰과 後漢 明帝, 康僧會와 吳나라 孫權’과⁷⁸⁾ 비교하면서 이들의 만남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차-①) 헌강왕의 극진한 대우에 대해 순지 역시 화답하여 경주를 찾아 직접 대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만남이 실로 저들마저도 부끄러워할 정도였다”(차-①)고 전하기 때문이다. 또, 순지는 헌강왕이 승하하자, 문인을 보내 조문했다.⁷⁹⁾ 당시 서운사의 단월은 왕건선대였지만, 순지는 신라왕실과도 결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성여왕대에는 왕실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진다. 순지는 893년(전성여왕 7) 왕의 초청에 응하여 경주로 들어와 왕실을 방문하였다. 그가 궁궐에서 설법하는 모습에 대해 “君王과 士庶들이 공경하는 것이 佛日이 다시 뜨고, 우담화가 다시 핀 것 같았다”(차-①)고 한다. 이는 871년 무염을 왕실에 초빙하여 국사로 책봉할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⁸⁰⁾ 순지를 무염에 버금가는 ‘국사’급의 대우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후 순지는 경주 인근을 순력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계림에서 3년간 사방으로 순력”(차-②)한 것으로 전하기 때문이다.

78) 葉麻騰은 후한의 明帝 때 낙양에 들어와 白馬寺를 짓고 불경을 번역하였다.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인물로 평가된다. 康僧會는 吳나라 孫權을 불교에 귀의하게 하였고, 손권은 그를 위해 建初寺를 지어 주었다. 그로 인해 오나라에 불교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79) 헌강왕의 재위는 875~885년이므로 <순지비>의 中和 연간(881~884)은 착오로 보인다. 만약 중화 연간이라는 표현이 옳다면, 비문의 ‘上僊’은 전왕인 경문왕의 遷化齋에 문인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80) (무염이) 궁궐에 이르니 경문왕이 면류복 차림으로 절하고 국사로 삼았다. 君夫人·世子 및 大弟相國과 公子·公孫들이 둘러싸고 우러른 것이 한결 같았다(韓國古代社會研究所, <聖住寺 朗慧和尚塔碑>, 앞의 책, 1992).

그리고 입적한 곳도 신라 왕경 인근이었던 듯하다.

이상 순지는 경문왕·헌강왕·진성여왕 등 3대에 걸쳐 신라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헌강왕과는 대면한 것으로 보이고, 893년 진성여왕의 초청으로 왕경인 경주로 이석하여 3년여를 인근지역에서 머물다가, 896년 입적하였다. 이러한 신라왕실과의 결연이 弓裔정권기에 들어와 서운사가 쇠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왕실에서 순지와의 결연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안왕의 뒤를 화랑출신의 경문왕(861~875)이 즉위하였다. 경문왕은 흥덕왕 사후(836) 치열하게 전개되던 왕위쟁탈전을 일단락 시키면서, ‘왕권 및 왕통의 재확립기’⁸¹⁾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경문왕과 헌강왕대의 치세는 평화시대·小康期, 혹은 신라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과정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기도 한다.⁸²⁾ 특히, 경문왕과 헌강왕은 선사들과의 결합을 통해 선종세력을 포섭함으로써, 왕권의 안정을 추구하였다.⁸³⁾ 선승들의 협조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순지를 대하는 신라왕실의 입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 함께 신라왕실에서는 순지를 통해 그의 출신배경인 패강세력과 단월인 왕건선대 세력을 포섭코자 하였던 듯하다. 즉, 선승들의 초치를 통해 그와 관련된 지방호족세력들의 이탈을 막고, 또 왕실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지녔던 것이다. 서운사가 왕건선대와

81) 경문왕·헌강왕·정강왕·진성여왕·효공왕대를 포괄하는 시기를 ‘景文王家期’ 또는 ‘景文王室’, 혹은 그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啓明系’로 부른다(김창겸,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新羅文化》 22, 2003, 220~223쪽).

82) 경문왕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김창겸,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안> 신라사학회 제73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8 참조.

83) 曹凡煥, 앞의 글, 1999, 43~44쪽; 全基雄, <憲康王代の 정치사회와 ‘處容郎忘海寺’條 설화> 《新羅文化》 26, 2005, 83~85쪽.

연결되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러한 신라왕실의 시도는 순지가 경주행을 택함으로써 다소간 성공했던 듯하다. 하지만, 순지가 입적하는 896년 무렵 용건이 궁예에 귀부함으로써⁸⁴⁾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왕건선대와 패강지역이 후고구려의 궁예에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순지가 진성여왕의 下敎에 응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은 공약에 머물다가 입당 시 신라왕실의 도움을 받았던 인연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타당한 계기는 (차)②에서 찾을 수 있다. 병사와 군대가 일어나고 군웅들이 각축하여 지방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그 영향이 서운사 일대에 미쳤다. 신라의 통제력 약화에 따른 혼란과 지방사회의 동요로 서운사의 유지가 어려워지자 왕의 초청에 응한 것이다.

우선, ‘지방사회의 혼란’은 889년(진성여왕 3) 전국적인 농민항쟁 이후, 896년(진성여왕 10)에는 경주 서부의 牟梁里에 赤袴賊이 침입해 민가를 약탈하는 사건⁸⁵⁾에 이르기까지 농민군이 점차 조직화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사정에 대해 崔致遠과 僧訓은 각각 “889~895년(진성여왕 9) 사이에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신라로 왔다”,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을 가득 채우고”, “나라가 온통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니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행동은 금수와 같았다”⁸⁶⁾고 전한다. 신라왕실과 6두품지식인층, 승려층 등이 느끼는 사회적 혼란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병사와 군대가 일어나고 군웅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여기서 군웅은 弓裔 등 소위 호족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91

84) 김두진, 앞의 책, 2006, 63쪽.

85) 《三國史記》 권11, 진성왕 3년 및 10년.

86)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海印寺妙吉祥塔記>·<五臺山妙吉祥塔詞>,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1992, 342~343쪽.

년(진성여왕 5) 北原의 梁吉이 弓裔를 보내어 북원의 동쪽 부락과 溟州 관내의 10여 군현을 공취하였다. 894년(진성여왕 8)에는 궁예가 북원에서 溟州로 600여 명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장군을 자칭하였고, 895년에는 무리가 3,500명으로 증가하여 14대로 나누어 鐵原 등 10여 군현을 攻取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896년 송악의 용건이 궁예에게 귀부했다. 897년에는 穴口(강화) 등 서해안 일대를 장악하였다. 특히, 궁예는 신라를 滅都라고 부르게 하고, 浮石寺의 벽에 걸린 신라왕의 畫像을 칼로 내리치는 등 극도의 반신라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견훤은 892년(진성여왕 6)에 完山州에 머물면서 5천여 명을 무리를 규합하고 후백제를 자칭하자, 武州의 동남 군현이 모두 항복하였다. 그 후 견훤은 900년, 궁예는 901년에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⁸⁷⁾

이처럼 순지가 경주로 이석하는 이유는 농민항쟁의 영향이 서운사 일대에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와 함께 궁예의 세력 확장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운사의 단월인 용건이 궁예에게 귀부한 것은 896년이였다. 그리고 898년에는 궁예가 溟西道 및 漢山州 관내의 30여 성을 차지하였다.⁸⁸⁾ 이는 898년까지 궁예의 영역 확대를 총괄하여 표현한 것으로, 패서지역은 895~896년경 용건과 함께 궁예에게 귀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⁸⁹⁾ 어찌면 893년경부터 궁예의 영향력이 서운사 일대에 미치기 시작하였고, 그 때문에 순지가 경주행을 택한 것이 아닐까 억측된다.

극단적인 반신라적 행태를 보이는 궁예⁹⁰⁾에게 용건과 패서지역 세

87) 《三國史記》 권11, 진성왕 해당년 및 《三國史記》 권50, 弓裔 및 甄萱傳.

88) 《三國史記》 권12, 효공왕 7년 추7월.

89)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연구》, 푸른역사, 2007, 78~79쪽.

90) 궁예가 부석사의 왕의 초상을 칼로 내리친 시기는 891년 전후였을 것이라고 한다(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해안, 2007, 58~59쪽).

력들이 귀부하는 것과는 달리 순지는 오히려 경주행을 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순지가 농민항쟁세력이나 궁예와 같은 호족세력들의 ‘반신라적인 동향’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⁹¹⁾ 특히, 순지는 서운사를 둘러싼 혼란한 상황을 타개하고 산문의 유지를 위해서 진성여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이는 그가 신라왕실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당시 정국의 중심축으로 신라왕실을 인정하면서 왕실을 통한 개혁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⁹²⁾

이런 맥락에서 순지의 시대 인식은 무염을 비롯해 신라왕실에 시무책을 제시한 寂忍, 慧徹, 眞鏡, 審希, 朗空, 行寂 등 여러 선승들의 그것과 통하는 면이 있다.⁹³⁾ 당시 선승들이 제시한 시무책은 ‘유교적인 왕도정치의 시행, 신분을 초월한 유능한 인재의 적소 임용, 왕권의 강화

91) 순지의 가문이나, 朴守卿계의 평산박씨 등은 정치노선이 고구려 지향적으로(李樹健, 앞의 책, 1984, 159쪽), 高句麗 繼承意識을 표방하였으며(鄭淸柱, 앞의 책, 1996, 44~45쪽), 고구려의 부활 혹은 재건을 꿈꾸었다(조인성, 앞의 책, 2007, 81~83쪽)고 한다. 이에 따르면 순지의 출신가문인 평산박씨 세력은 반신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순지는 반신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신배경만으로 선승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92) 선승과 신라왕실의 관계에 대해 “경문왕과 헌강왕대에 선승들은 신라왕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曹凡煥,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新羅文化》 26, 2005, 275쪽)거나, “선승들은 신라왕실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등지고 부정하지는 않았다”(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36~37쪽)고 한다.

93) 慧徹은 문성왕이 理國之要를 묻자 奉事 약간 조항을 올렸는데 모두 時政의 급무였다. 無染은 헌안왕에게 周豊과 魯公의 고사를, 헌강왕에게는 ‘能官人’을 건의하였고, 興利除害策을 묻자 何尙之와 宋文帝의 고사를 인용해 대답하였다. 審希는 理國安民之術을, 行寂은 도를 숭상함에는 伏羲氏와 軒轅氏의 방법을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堯舜의 風道를 제시하였다(최인표, 앞의 책, 2007, 24~37쪽).

와 호족에 대한 문제’ 등이었다고 한다.⁹⁴⁾ 이는 당시의 신라 사회가 당면한 급무에서부터 근본적인 개혁 방안까지 광범위한 것이었다. 시무책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⁹⁵⁾ 선승들이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순지비>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순지가 왕궁에서 한 설법의 속에도 이와 유사한 시무책이 포함되었을 듯하다. 즉, 농민항쟁에 대한 경험과 왕건선대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대농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 호족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894년(진성여왕 8) 2월에 崔致遠이 時務 10여조를 올리니 왕이 嘉納하고 阿漚에 임명했다.⁹⁶⁾ 시무 10조는 “반진골적 입장에서 과거 제 실시와 전제왕권 지지, 반호족적 입장에서 중앙집권 정책 강화와 지방호족세력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겼다”거나,⁹⁷⁾ “정부조직의 체제와 관직에 기반을 둔 통치형태의 수립과 지방세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을 것”⁹⁸⁾이라고도 한다. 순지가 경주로 이석한 이듬해에 개진된 시무 10조의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순지가 신라 왕실을 통한 사회 개혁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시무책을 제시한 선승들이나 최치원 등의 신라왕실에 대한 인식과 상통하는 측면이 다소간 있었다고 추측된다.

94) 최인표, 앞의 책, 2007, 36~37쪽. 시무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曹凡煥, 앞의 책, 2008, 72~73·100~101쪽과 曹凡煥,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69~74쪽 참조.

95) 최인표는 “선승들의 시무책은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었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신라왕실로서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최인표, 앞의 책, 2007, 36~37쪽).

96) 《三國史記》 권11, 진성왕 8년.

97) 李基白, 앞의 책, 1986, 232~235쪽.

98)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1996, 49~54쪽.

3. 오관산 선문의 위상

순지는 858년 입당하여 양산 혜적의 문하에서 위양선을 수학하고, 874년 귀국한 후 입적하기까지 22년간 교화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는 왕건선대의 지원을 받았고 신라왕실과도 결연하면서 오관산 서운사를 중심으로 산문을 이끌었다.

순지 당시 서운사는 876년 경 사역을 옮겨 크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 규모가 작지 않았음이 짐작된다.⁹⁹⁾ 특히, 증축과정에서 “원위치에서 1리 정도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았다”는 구절이 주목된다. 사역 내에 400m 정도 떨어진 舊 용암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용암사는 서운사의 末寺나 암자로 존속했을 듯하다.

순지의 문인도 “현인과 선비가 크게 모여 들었다”, “좌석에 가득 찬 제자들이 사랑스러웠다”는 것으로 보아 적지 않았음이 추측된다. 문인으로는 상족제자인 兪光선사와 입적 후 행장을 바친 大德 俊空, 惠云 上人 등이 확인된다. 또, 937년(태조 20)경 서운사의 三綱典이 기록되어 있다. 院主僧 玄及, 典座僧 郎虛, 維那僧 □□ 등이 그들인데, 순지의 문제자나 門孫이었을 것이다. 삼강전은 선종이 지방사회에 정착한 이후 고려의 불교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한 사원 내의 자치 기구였다고 한다.¹⁰⁰⁾

나말려초 산문의 규모나 경제력, 문인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

99) 김두진은 “용녀나 왕건이 대규모의 사원경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지가 주지로 있던 서운사의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한다(김두진, 앞의 책, 2006, 102쪽).

100) 金在應, <新羅末·高麗初 禪宗寺院의 三綱典> 《震檀學報》 78, 1994, 70쪽.

혀져 있다. 鳳巖寺는 9개의 大佛殿을 비롯해 17개의 요사 건물, 聖住寺는 불전 80칸, 행랑 800여 칸 등 1,000칸에 이르는 규모였다. 상주 인원은 500~600명 정도이며, 2,000명을 상회하기도 했다. 토지는 500결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¹⁰¹⁾ 서운사도 왕건선대나 신라왕실의 지원을 염두에 둔다면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순지 당시에는 서운사를 중심으로 조사와 문인의 계보가 형성되었으며,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五冠山 禪門의 성립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순지비>에는 순지 입적 후의 변화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카) 얼마 뒤 갑자기 병환으로 입적하였다. … 문하생은 스승을 잃어버린 자 (결락) 入唐한 사람은 많았으나 본국으로 귀국한 자는 드물었다. 비록 신령스러운 관은 옛터로 돌아왔으나, 法堂의 玄關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 다행히 버락처럼 제거하니 (결락) 上足제자인 sunlight 사가 … 임금에게 알리니, 惠雲상인에게 명하기를 삼가 이 비석을 예우하여 (결락) (<순지비> 후기).

(카)에서 순지 입적 후 “靈櫬은 옛터로 돌아왔으나, 法堂은 玄關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서운사가 상당히 쇠락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37년 순지비의 중수 이후 서운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처럼 순지 입적 후 서운사가 쇠락한 이유에 대해 기왕의 성과에서는 그의 문도가 번성하지 못해 종파로 성립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서운사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道誥의 裨補說에 의해 고려 초에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순지의 교선일치사상은 신라 말의 선종이나 교학 모두에게 배척받았기 때문”

101)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1975 : 《韓國佛教禪門의 形成史研究》, 民族社, 1986, 204~210쪽 ; 김두진, 앞의 책, 2007, 56~58쪽 및 112~122쪽.

이라고 한다.¹⁰²⁾ 또, “서운사가 9산문에 들지 못한 것은 그 제자들 대부분이 당나라에 들어가 귀환하는 자가 드물어, 걸출한 인재들이 계속하여 그 법을 선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¹⁰³⁾ 최근에는 932년(태조 15) 태조가 해주 廣照寺를 짓고 眞澈 利嚴(866~932)을 주석시켜 須彌山門을 개창한 것과 연결시켜 해석한다. 즉, “패서지역 호족세력이 순지계통의 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자 그것을 불식하고, 순지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미산문을 개창했다”는 것이다.¹⁰⁴⁾

이와 달리 선종 9산문설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서운사가 선종산문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신라시대에는 9산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雙溪寺의 慧昭門이나 오관산의 순지문이 9산문 중에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독립 산문으로 존재했다”거나,¹⁰⁵⁾ “오관산 서운사는 高達院·道峰院 등과 함께 9산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말려초 두드러진 선종사원으로 법맥으로나 사상면에서 특색을 보인다”는 것이다.¹⁰⁶⁾ 나말려초에는 9산문 보다 훨씬 더 많은 산문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오관산이라는 것이다.

반면, 9산문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9산문은 한국선이 9산 이외에 더 많은 종파로 분열하는 것을 막아준 장치”로,¹⁰⁷⁾ “오관산 서운사 등은 후예가 번성하지 못함으로써 9산선문의 계보 작성에서 제외된 것”¹⁰⁸⁾이라고 한다. 이처럼 9산문설에 대한 비판과 반론 과정에서

102) 김두진, 앞의 책, 2006, 102~103쪽.

103) 추만호, 앞의 책, 1992, 116쪽.

104) 조범환은 “해주 지역에 선종 사찰을 개창함으로써, 패서지역의 호족세력이 장단의 순지계열의 선승 세력과 연결된 고리를 끊게 하고 광조사들을 중심으로 패서지역 불교계를 재편코자 했다”고 한다(曹凡煥, 앞의 책, 2008, 224~227쪽).

105) 韓基斗,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 61~62·95~98쪽.

106) 許興植, 앞의 책, 1986, 160~177쪽.

107) 高翊晉, 앞의 책, 1989, 508~509쪽.

순지와 서운사가 주로 거론된다. 이는 순지와 서운사의 위상이 9산문이나 그 개창자들에 비해 낮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순지 당시 서운사의 위상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관산 선문이 9산문에 포함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지가 서운사를 떠나 경주로 온 893년 이후 895~897년 사이 패강지역은 물론 송악과 장단일대가 궁예에 의해 장악된다.¹⁰⁹⁾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신라 왕경 인근에서 순지가 입적한다. 순지의 문인들은 스승의 유해를 서운사로 모시고, 스승과 산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라왕실에 비의 건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혜공왕은朴仁範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탐비를 서운사에 건립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了悟선사라는 시호와, 眞原이라는 탐명이 내려졌던 듯하다. 신라왕실에서는 서운사를 매개로 왕건선대 및 평산박씨 세력을 회유코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반신라 정책을 추진하던 궁예가 신라왕실과 연결된 서운사에 대해 강한 견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궁예 휘하의 용건이나 왕건, 패강(평산박씨)세력도 서운사를 지원하기가 어려웠으며, 신라왕실로서는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순지의 문인들은 서운사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당으로 유학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운사는 궁예 정권하에서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원의 자치조직인 삼강진을 통해 산문의 명맥만은 어렵게나마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918년 궁예를 버락처럼 축출하고 왕건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다. 왕건은 궁예와 달리 신라에 대해 포용적이었고, 선승들을 포섭하여 후삼국 통일의 기반을 추구하는 불교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서운사에 대해서도

108) 추만호, 앞의 책, 1992, 116~118쪽.

109) 조인성, 앞의 책, 2007, 79쪽 및 289쪽 주 55).

관심을 가졌으며, 쇠락해가던 서운사가 부흥할 여건이 다소간 갖추어졌다. 이에 순지의 상족제자인 영광선사가 서운사와 왕건선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려 왕실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효공왕대 건립된 <순지비>의 왕건선대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을 것이다.

이에 왕건은 <순지비>의 내용 중 선대의 시호를 고치고, 崔彦撝로 하여금 후기를 쓰게 하여 937년 중수비를 건립하였다. 동시에 서운사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을 것이다. 쇠락하기 이전의 사원 田民에 대한 소유권 등을 추인해 주고, 추가적인 지원도 뒤따랐을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사원 운영의 주체인 삼강전을 후기에 기록하였다. 순지의 문인들이 서운사의 운영을 계승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궁예정권기의 탄압으로 순지의 문인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고, 또 스승의 법을 이을 만한 걸출한 인재가 등장하지도 못하였던 듯하다. 어찌 보면 순지 문인들이 산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라왕실에 <순지비>의 건립을 요청하여 성사되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산문이 쇠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던 셈이다.

이상에서처럼 순지 당시의 서운사는 9산문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번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입적 후 궁예정권기가 되면 겨우 명백만 유지될 만큼 쇠락하였다. 그러다가 왕건이 즉위하면서 산문의 위세를 다소간 회복할 수 있었다. 왕건이 후삼국 통일 직후 자신의 선대와 관련된 순지비를 중수하면서, 오관산 선문의 위상을 인정해 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937년 이후 서운사는 물론 그와 관련된 선승들의 기록을 잘 찾아볼 수 없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번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맥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선대와의 관계는 고려시대 서운사 존속의 좋은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후기 靜覺國師 志謙이 순지의 사상을 재정리한 ≪종문

원상집》을 편찬하고,¹¹⁰⁾ 수선사 3세인 淸眞국사 夢如(?~11252)가 간행한 것은 주목된다. 오관산 선문을 계승한 선승들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 후기 정각 지검에 대한 검토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다.

V. 맺음말

이상 了悟 順之(832~896)의 생애와 五冠山 禪門의 개창과정을 살펴해보았다. 王建先代와의 관계를 강조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재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 신라왕실과의 결연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 순지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는데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순지비>는 신라 효공왕대(897~911) 초 왕명으로 朴仁範이 찬하여 瑞雲寺에 건립되었다. 이때 了悟선사라는 시호와 眞原이라는 탑명이 내려졌던 듯하다. 그 후 937년 왕건선대의 國諱 등을 수정하고, 崔彥擣가 後記를 찬하여 중수하였다. 순지의 생몰년은 832(흥덕왕 7)~896년(진성여왕 10)으로 정리된다.

순지는 朴씨로, 溟江人이며 어머니는 昭씨였다. 그는 선대가 꽤강진에 정착하면서 지방세력화 한 平山박씨 출신이었다. 그는 신라의 관직으로 진출코자 하였으나 한계에 이르자 20세에 五冠山(龍巖寺)로 출가하였다. 그 뒤 俗離山(法住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는데, 眞表계의 미륵신앙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수계 후에는 公岳山(桐華寺)에 3~

110) 許興植, 앞의 책, 1986, 167쪽.

4년 정도 머물렀다. 당시 동화사에는 眞表－永深을 계승한 心地가 주석하였는데, 순지는 심지를 통해 신라왕실과 연결되었다.

순지는 858년(헌안왕 2) 승려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선사상을 수학하기 위해 입당 유학하였다. 입당 시에는 신라왕실에서 파견한 入朝使와 동행하였다. 당에 도착한 순지는 仰山 慧寂(807~883)의 제자가 되었다. 滂仰宗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종파로, 양산은 신라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지는 양산 문하에서 위양종을 계승하고 學人들을 지도하는 등 명성을 높여 나갔다.

874년(경문왕 14)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선사상을 펼치기 위해 귀국하였다. 순지의 귀국을 접한 王建先代는 그를 용암사로 초청하였다. 왕건先代는 선종사원을 경영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반을 확대하고, 패강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순지를 지원했다. 순지는 왕건先대와 사회적 기반이 비슷하였고 산문 개창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들였다. 876년(헌강왕 2) 경에는 용암사를 증축하고 사원명도 瑞雲寺로 바꾼 듯하다.

한편, 순지는 신라왕실과도 결연하고 있었다. 경문왕은 순지가 귀국하자 편지를 보내 귀의하였다. 헌강왕도 순지를 극진히 대우하였는데, 순지도 화답하여 왕과 직접 대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헌강왕이 승하하자 門人을 보내 조문하기도 했다. 893년(진성여왕 7)에는 왕의 초빙으로 경주에 들어와 왕실에서 설법하였다. 그 후 왕경 인근에서 3년여를 머물다가 입적하였다.

신라왕실에서는 순지의 협조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정당성을 회복하고, 패강지역과 왕건先대 세력을 포섭하려고 했다. 순지가 왕실의 초청에 응한 것은 889년(진성여왕 3) 이후 농민항쟁의 여파가 서운사에 이르고, 弓裔 세력의 영향이 장단지역에까지 미쳤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순지는 농민항쟁세력과 궁예 등 호족세력들의 반신라적 움직임

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신라왕실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듯하다.

순지 당시 서운사는 규모나 문인 등에서 9山門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번성하였다. 서운사를 중심으로 祖師와 門人의 계보가 형성되었으며,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五冠山 禪門이 성립된 듯하다. 하지만, 순지 입적 후 궁예정권기가 되면 신라왕실과 연결된 서운사에 대한 탄압으로 사세가 쇠락해 진다. 그 후 왕건이 즉위하면서 산문의 위상이 다소간 회복되지만, 순지를 계승할 걸출한 인재가 등장하지 못해 위상을 크게 떨치지지는 못하였다. 고려 후기 靜覺國師 志謙(1145~1229)이 순지의 사상을 재정리한 《宗門圓相集》을 편찬한 사례로 보아, 선문의 명맥은 고려시대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처럼 순지는 지방호족 출신의 선승으로, 왕건전대는 물론 신라왕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나말려초라는 시대적 격동기에 활동한 선승들의 행보가 신라왕실과 지방호족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1992.
-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출판부, 1989.
- 權惠永, <唐 武宗의 廢佛과 新羅 留學僧의 動向> 《精神文化研究》 54, 1994.
- 金南允,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1984.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 金福順, <8·9세기 신라 瑜伽系 佛教> 《韓國古代史研究》 9, 1993.
- 金在應, <新羅末·高麗初 禪宗寺院의 三綱典> 《震檀學報》 78, 1994.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1999.
- 김용신,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 김창겸,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新羅文化》 22, 2003.
- 김창겸,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안> 신라사학회 제73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8.
- 朴貞柱, <新羅末·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震檀學報》 77, 1994.
- 呂聖九, <統一期 在唐留學僧의 活動과 思想> 《北岳史論》 8, 2001.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혜안, 2002.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혜안, 2007.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編1, 伽山文庫, 1994.
-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1996.
- 全基雄, <憲康王代의 정치사회와 ‘處容郎忘海寺條 설화’> 《新羅文化》 26, 2005.
- 정동락,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 정동락, <신라·고려시대 符仁寺의 변천과 현실대응> 《民族文化論叢》 39, 2008.

- 鄭性本,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 鄭性本, 《禪의 歷史와 禪思想》, 三圓社, 1999.
- 鄭清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 曹凡煥,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16, 1999.
- 曹凡煥,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 曹凡煥,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新羅文化》 26, 2005.
-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崔炳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의 性格> 《史學研究》 25, 1975.
- 崔炳憲, <道說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11, 1975.
- 崔源植, 《新羅菩薩戒思想研究》, 民族社, 1999.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 崔玄覺, <大朗慧無染의 無說土論> 《普照思想》 9, 1995.
- 秋萬鎬, <羅末麗初 禪師들의 胎夢과 民衆生活> 《韓國佛教文化史思想史》 上,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1992.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1992.
-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上(原文校勘編)·下(譯註編), 혜안, 1996.
- 韓基斗,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韓基汶, <『祖堂集』과 新羅·高麗 高僧의 行蹟> 《한국중세사연구》 6, 1999.
- 許興植, 《高麗佛教史 研究》, 一潮閣, 1986.
- 현람(최창술), <순지의 성불관—삼편성불편을 중심으로> 《韓國佛教文化史思想史》 上,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1992.

ABSTRACT

A Reevaluation of the Life of Ryo-oh Sunji

Jung, Dong-Rak

Ryo-oh Sunji(832~896) came from the Pyeongsan Park family in Paegangjin. He tried to advance to the government official of Silla, but he confronted his limitations. Then, he left home at the age of 20 for Ogwangsan(Yongamsa Temple) to become a Buddhist priest. Later, he received Buddhist precepts at Songnisan(Beobjusa Temple), and stayed at Gongaksan(Donghwasa Temple). At that time, Simji who was a successor to Jinpyo—Yeongsim, was the head in the Donghwasa Temple, and Sunji appeared to meet with Simji.

Broaden his influence as a monk and study Zen ideology, Sunji went abroad to Tang in 858. Immediately after arriving in Tang along with Ibjosa, dispatched from the Silla Dynasty, Sunji became a pupil of Angsan Hyejeok. He succeeded Wiangjong under the guidance of Angsan and taught learners, which increased his fame.

He returned to the country in order to unfold his Zen ideology in 874. Thus, the ancestors of Wanggeon invited him to Yongamsa Temple in order to ran the Seonjong Temple and reinforce the tie with the Paegangjin area. The social fundamentals were similar to the ancestors of Wanggeon and he needed a creation of Sanmun; thus, Sunji accepted the invitation. The Yongamsa Temple was increased on a large scale in 876, and its name was changed to

Seowunsa Temple.

Meanwhile, Sunji also formed a relationship with the Silla Dynasty. King Gyeongmun sent a letter to Sunji after Sunji came back to the country. King Heongang also treated Sunji cordially, and Sunji seemed to engage the king in response to his treatment. In 893, Sunji came to Gyeongju by invitation of the king, and also preached in the royal palace. Sunji is supposed to have negatively perceived the hunch of the anti-Silla movement by the farmer resistance force and the local native force, whereas he had hoped for the renovation of the Silla Dynasty.

At the time of Sunji, Seowunsa Temple became as prosperous as Gusanmun in terms of either its scale or its disciples. It looks like a lineage of founders of religious sects and disciples was created centering around Seowunsa Temple, and the Seonmun of Ogwansan was established on a financial basis. Seowunsa Temple withered during the Gungyeo regime, but regained its standing along with the enthronement of Wanggeon. The Seonmun of Ogwansan barely remained in existence entering the Goryeo period.

Key words : At the end of the Silla period and the early Goryeo period, Seonjong, Sunji, Seowunsa Temple, the ancestors of Wanggeon, Silla Dynasty

논문 투고일 : 2008. 11. 7 심사 완료일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 2008. 12. 20